맞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적 사건에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영웅들이라도 큰 흐름으로서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이 위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생성되어야 할 사회관계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계급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대변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필연의 인식에서 더욱 더 큰 활동력이 나오기 때문이었다.[31]

결국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에서 플레하노프의 입장은 "우리들의 차이점"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어떤 해설자들은 플레하노프가 맑스보다도 엥겔스를 통해 헤겔이나 사적 유물론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엄격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32] 그러나 유물론적 변증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적 결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맑스주의에 대한 그의 해석을 보다 더 간결하게 체계화해 놓은 그의 마지막 주요 저서 "맑스주의의 근본문제"(1908)를 보면 플레하노프가 자유와 필연의 문제를 결코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이 나타난다.[33] 그가 필연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발리쯔키가 지적한 대로 오히려 심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중의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만이 사회주의의 승리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 필연임을 입증해야 되었던 것이었다.[34] 추악한 자본주의적 현실을 현실로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심거리였는가는 그가 현실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벨린스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느꼈던 점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가 요청하는 행동을 함에 있어 자유와 필연, 필연에 대한 승복과 혁명적 부정, 탁월한 개인의 의지적 행위와 민중의 자발성 등 서로 대치되는 개념과 가능성들 사이에서 그때그때 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지적 차원의 일만이 아니며, 맑스주의 이론에의 달통이 결코 올바른 해결에 대한 보장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한 사실은 플레하노프가 인민주의 다음으로 직면하게 된 다른 도전들——수정주의, 경제주의, 레닌주의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Ⅳ. 수정주의와 경제주의의 극복

플레하노프에게 1890년대 후반부는 오래 기다렸던 승리의 시기였다. 1894년 이래 인민주

31) 같은 책, Ⅰ, pp. 568-569.
32) Kolakowski, 앞 책, p. 341.
33) Plekhanov, 앞 책, Ⅰ, p. 569. *Fundamental Problems of Marxism* by George V. Plekhanov, pp. 77-78, 91-92.
34) Walicki, 앞 책, p. 417.

의자들과의 논쟁이 거의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명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가 널리 소개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그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으로서의 플레하노프의 공헌과 권위는 드디어 국내외에서 인정되었다. 그와는 별도로 러시아 내에서 혁명운동을 하던 레닌도 〈노동의 해방〉 선배들과의 연계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새세대 사회민주주의 조직에 〈노동의 해방 연맹〉(Soiuz Osvobozhdeniia Truda)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상트 페테르부르그뿐 아니라 모스크바, 키예프, 오뎃사, 티빌리시, 사마라, 보로네즈 등 러시아 각지에 사회민주주의 조직이 결성되었다. 1895년에는 전국적으로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의 수가 5만이었던 데 비해 1896년에는 페테르부르그市에서 한번에 3만 5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1896년에 열린 인터내셔날 제4차 총회에는 플레하노프, 자술리취, 악셀로드뿐 아니라 러시아 내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대표해서 스트루베와 포트레소프(A.N. Potresov)가 같이 참석했다. 혁명적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드디어 러시아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었다. 1898년에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창당이 민스크에서 선포되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탄생은 플레하노프의 승리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혁명운동의 성장과 확산은 곧 맑스주의의 이론가로서뿐 아니라 黨정책 수립에서도 최종적 결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여러 방향에서의 도전을 몰고 왔다. 이미 1894년 인민주의와 논쟁을 벌이는 속에서도 레닌은 자본주의에 대한 스트루베의 해석이 자기의 해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감지하고 간접적으로 스트루베를 비판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레닌도 스트루베도 그 당시에는 인민주의자의 반발에 맞서 부르조아지와 공동 전선을 펼 필요성을 강조하던 플레하노프의 입장에 동조한 나머지 서로간의 대결을 피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방침을 채택했었다.[35] 그러나 레닌이 우려했던 바대로 그 문제가 드디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수정주의" 논쟁으로 터져나왔다. 이미 의회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독일의 사회민주당 내에서 혁명적 맑스주의 노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1899)의 발표로 표면화된 이 논쟁은 결국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에는 혁명주의와 개량주의 두 갈래의 대립되는 경향이 절충되지 못한 채 계속되어오고 있었음을 선명히 부각시켰다. 카우쯔키, 클라라 제트킨, 로자 룩셈부르그는 모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대해 혁명적 맑스주의 입장을 옹호했으나 공격의 치열함에서 플레하노프를 능가한 사람이 없었다.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운동이 전부인 것이다"라는 유명한 공식을 내세운 베른슈타인은 헤겔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그가 해석하고 있던 맑스주의의 결정론적 요소를 비판하며 사회발전에 관한 맑스의 예

35) 韓貞淑, 「스뜨루베의 합법적 마르크스주의와 레닌(1894~1895)」, 『李元淳敎授華甲記念史學論叢』, 1986.11, p.812.

측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임을 주장했다. 1888년부터 영국에서 살고 있던 그에 따르면 자본의 집중, 계급의 양극화, 그리고 혁명적 변화를 통한 기존 질서의 타파의 불가피성을 주창하는 맑스의 혁명이론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의 과제는 재산과 정치제도를 점진적으로 사회화해 나가는 데 있었으며 이미 현실적으로 그러한 개량주의를 실천에 옮기고 있던 사회민주당은 이제 오래 전부터 주창되어 왔던 혁명이론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 함이 베른슈타인의 결론이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수정주의를 공식으로 배격했으나 베른슈타인 자신은 당에서 축출되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증가해갔다. 플레하노프가 볼 때 이것은 맑스주의 혁명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배반이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던 카우쯔키 자신에 대해까지 의심을 품게 하는 일이었다.[36] 수정주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의 잘못에서 나온 오류로서만이 아니라 철학적 기저에서부터 배격되어야 할 위험이었다.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진영내에서도 신칸트주의가 새로이 관심을 모으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던 플레하노프는 맑스주의 내에서 헤겔의 결정론적 영향을 비판하는 베른슈타인의 이론은 칸트에 의존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 속에 부르조아적 의식구조를 침투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37]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종교적 신앙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압박받는 계급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도구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칸트주의는 또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필연적 귀결로 보는 대신 의지적 행동을 통해 접근해 가기는 하되 결코 완전히 달성될 수는 없는 이상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결국 혁명의 길을 포기하고 개량주의나 기회주의로 흐르도록 만들었다.

플레하노프는 개량주의로 혁명적 맑스주의를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베른슈타인이 제시했던 현실분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중산층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처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된다 해도 그것이 계급 갈등의 심화에 대한 반증이 될 수는 없었다. 프롤레타리아의 상대적 빈곤은 결코 감소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들이 조합주의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계급적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직이나 사회민주당 내의 일부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 때문이었다.[38]

플레하노프는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적 발달의 촉진과 정치적 민주화는 사회주의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단계였고, 그 단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부르조아지와 협동하여 정치적 투쟁을 감행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의 달성이라는 맑스주의 혁명이론의 핵심에 대한 포기나 수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보았듯이 플레하노프에 있어 맑스주의 혁명이론은

36) Plekhanov, *Selected Philosphical Works*, Ⅱ, pp. 340-341.
37) 같은 책, Ⅱ, pp. 367, 378. Chagin, 앞 책, p. 11.
38) 같은 책, Ⅱ, pp. 372-373, 565-566.

단순히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만들어졌던 혁명 전략으로 현실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맑스주의를 칸트주의와 접합시키려는 베른슈타인의 시도는 카우쯔키가 생각하듯이 누가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자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순한 사건으로 안일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플레하노프가 볼때 "누가 누구를 매장할 것인가,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를, 아니면 사회민주주의가 베른슈타인을 매장할 것인가"라는 사회주의의 존망에 관한 문제였다.[39]

플레하노프의 이러한 흑백론적 공격에 대해 베른슈타인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에 자기의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응수했다. 사실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창당대회를 위한 선언문을 작성했던 스트루베와 그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많은 지식인 출신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전망과 방법에 대해 베른슈타인과 매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으며 플레하노프와 〈노동의 해방〉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에서도 고립되어감을 느끼고 있었다. 플레하노프는 스트루베의 맑스주의 비평에 대해서 또다시 유물론을 옹호하는 동시에 수정주의의 또다른 아류라고 보았던 "경제주의"에 대항해서도 자기의 "정통파" 혁명적 맑스주의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

역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프로코포비취(S.N. Prokopovich)와 쿠스코바(E.D. Kuskova)를 이론적 支柱로 하고 있던 경제주의는 사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관한 논쟁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운동 내부에서 일고 있던 움직임이었다.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맑스의 이론을 강조하던 경제주의자들은 노동운동에서 주도권은 노동자들 자신에게 있어야지 지식인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믿었으며 노동자들은 사회민주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없이 경제적 권익의 확보 등 현실적 결과의 획득에 활동의 촛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헌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이나 사회주의적 혁명의식의 계발이 구체적 경제적 권리의 확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다.[40]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들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처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혁명적 인텔리겐찌아가 외부에서 수입해온 추상적 이론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경제주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한의 권익 보장이 시급하고 모든 정치 활동이 심한 통제를 받고 있던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매우 강한 호소력을 가지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플레하노프가 볼 때 그것이 내포하는 위험은 그만큼 더 컸다. 그뿐더러 경제주의의 대두가 플레하노프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도전이었던 것은 그것이 한때 자기

39) 같은 책 Ⅱ, p. 351.
40) E.D. Kuskova, "Credo," *Marxism in Russia, Key Documents, 1879~1906*, Cambridge, 1983, pp. 250-251.

를 포함한 인민주의자들이 정치투쟁에 대한 경제투쟁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자기가 경멸해왔던 사람들에 의해 〈노동의 해방〉이 패배당하는 듯한 수치스런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41]

경제주의에 대항하여 플레하노프는 사회주의가 정치투쟁을 떠나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켰다. 사회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구체적 경제적 목표 달성에의 집중은 노동자들의 기회주의적 본능에 대한 굴복이었으며 그것을 진정한 노동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맑스주의의 포기였다.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경제적 요구가 종속되어야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최종적 대결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었다. 경제주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젊은 세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론에 대해 무관심하고 실질적인 조직활동과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선동에만 치중하다가 관료주의적 조합주의에 함몰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핵심적 역할은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다시 주의깊게 공부하고 그 이론을 노동운동에 도입하는 데 있었다. 노동운동에 방향을 부여하는 중요한 일은 노동자들 자신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지도층이 담당해야 되었으며 노동자들이 조합주의 의식에만 머물게 되는 책임도 그들이 져야하는 것이었다.[42]

플레하노프는 경제주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자발적 성향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맑스주의 이론에 밝고 투철한 혁명의식을 가진 인텔리겐찌야의 계도적 역할을 크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러시아 사회민주주의가 레닌주의쪽으로 기울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 레닌주의가 과연 그의 동조 없이는 러시아에 뿌리내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런 이야기지만 여기서 정면으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텔리겐찌야의 역할에 대한 플레하노프의 강조가 결코 그가 혁명가로서 일생 동안 견지해온 기본적 소신, 곧 혁명의 주체는 대중이어야 된다는 생각과 자연적 전개 과정으로서의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야만 사회주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함이다. 수정주의와 경제주의와의 대결 과정에서 그는 자기와 입장을 같이 하는 레닌이 경제주의자들에게 보다 더 단호하게 대하지 않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었다.[43] 그러나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 그 반대 방향에서 온다고 느꼈을 때, 곧 당의 역할이 역사의 법칙성과 대중의 자발성을 무시할 정도로 강화된다고 느꼈을 때, 플레하노프는 공격의 방향을 바꿀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에 뿌리박은 혁명의식을 가진 혁명적 엘리트의 계도적 역할과 혁명의 모체가 되어야 할 대중의 의식의 자발적 표출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데는 어떤 미

41) Baron, 앞 책, p. 193.
42) 같은 책, pp. 202-203.
43) Kolakowski, 앞 책, p. 349.

리 마련된 지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멘쉐비키와 볼쉐비키로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맑스주의의 이론적 支柱로서 독재적 권위을 고집해오던 플레하노프가 심한 동요를 보이게 된 것도 결국은 맑스주의 이론에 내재하는 바로 이러한 해석과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Ⅴ. 레닌과의 대립

수정주의 및 경제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플레하노프가 얻어낸 가장 큰 결실은 레닌 및 그가 대표하는 러시아 내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지지의 획득이었다. 1900년 처음으로 직접 만난 플레하노프와 레닌 사이에는 처음부터 기질적인 마찰이 심했지만 맑스주의의 혁명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근본적 입장에 있어서는 견해의 일치가 있었다. 그 당시 당세력의 규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던 레닌의 노력으로 국내파 대표 레닌, 마르토프, 포트레소프와 플레하노프, 자술리취, 악셀로드를 공동 편집인으로 하는 당기관지 "불꽃"(Iskra)이 발간되기 시작했고, "새벽"(Zaria)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며 주로 이론을 다루는 두번째 간행물의 편집은 플레하노프가 거의 독점할 수 있었다. 1900년에서 1905년까지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활동은 이 두 간행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었다.

브뤼쎌에서 개최될 黨大會에 대비하여 黨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플레하노프와 레닌 사이에는 성격상의 마찰 이외에도 농민문제 및 부르조아지와의 공동전선 문제에 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념론과 자유주의 입장으로의 전환을 노골적으로 들어내고 있던 스트루베를 레닌은 단호하게 적대시했던 반면에 플레하노프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 한 例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 프롤레타리아의 기회주의적 본능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었으며 강력한 黨의 통합적 주도권하에서 전개되는 정치투쟁의 중요성을 믿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입장의 근본적 일치가 있었다. 따라서 플레하노프는 개회사에서 대중운동의 자발성을 黨의 의식적 활동에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역설했다. 黨員의 자격을 규정하는 黨則 제1조에 관한 마르토프와 레닌의 서로 다른 案을 놓고 논란이 벌여졌을 때 플레하노프는 그 문제가 그리 중대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한 발언을 했으나 결국, 기회주의자들을 黨에서 배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원의 자격을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한시키는 레닌의 案을 지지했다. 플레하노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에 관한 한 레닌은 마르토프에게 다수를 빼앗겼으나 곧 이어서 "불꽃"誌의 편집진뿐 아니라 黨중앙위원회와 黨협의회를 볼쉐비키가 장악하는 데 플레하노프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당시 플레하노프의 입장은 철저하게 볼쉐비키적이었다. 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만을 黨員으로 인정하고 중앙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중앙집권적 당조직에 민주적 원칙이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플레하노프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 모든 민주주의 원칙은 그것 자체로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인민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라는 원칙과의 관련 속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혁명가의 말로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혁명의 성공이 최상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
> 그리고 우리는 의회의 기한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혁명의 열광 속에서 인민이 훌륭한 의회——일종의 Chambre Introuvable——를 선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장기의회(Long Parliament)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엔 우리는 그것을 2년 이내가 아니라 가능하면 2주 이내에 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44]

혁명의 성공을 최상의 법으로 내세웠던 이 연설은 1917년 10월 볼쉐비키의 권력장악 후에 벌어질 사태를 그대로 예언한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레닌주의는 플레하노프의 "정통파" 맑스주의의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플레하노프와 레닌의 협력은 그러나 볼쉐비즘이 러시아 사회민주당내에서 레닌이 이끄는 독자적 노선으로 그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곧 종식되었다. 플레하노프는 黨의 분열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자기의 옛동지들에게 총뿌리를 드리댈 수는 없다고 멘쉐비키의 입장으로의 자기의 전환을 감상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45] 그러나 단순한 감상주의로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강력한 黨의 주도권 행사의 필요성을 믿는 데에서 그는 레닌뿐 아니라 대다수의 러시아 사회민주당원들과 견해를 같이 했지만 마르토프와 레닌 사이에 黨조직 및 혁명전략에 관해 벌어졌던 견해 차이가 자기가 처음 생각했듯이 단순히 黨조직과 운영상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혁명의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黨의 재통합에 대해 그는 희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기반 위에서 새 출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당내에서 일었을 때 플레하노프는 레닌과 함께 레닌이 "淸算主義"라고 매도하는 그 입장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볼쉐비키에 대한 그의 비판도 격렬해졌다.

경제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비판의 핵심은 그들이 대중의 자발성을 지나치게 존중한 나머지 의식적,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사회주의의 수립이라는 목적의식을 상실했다는 데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반대의 결함, 곧 소수의 의지적 활동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역사발전의 자연적 법칙에 대한 무시, 곧 이전에 인민주의의 테러주의파에서 그가 이미 마주쳤던 적이 있던 블랑키주의와 자코뱅주의를 볼쉐비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플레하노프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었다.[46] 모든 정치적 주도권을 노동계급 대신에 지식인 출신 직업적 혁명가들이 잡게 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주체로서의 역할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었다. 노동계급이

44) Baron, 앞 책, p. 242.
45) 같은 책, p. 246.
46) 같은 책, p. 248.

스스로는 사회주의 의식을 발달시킬 수 없으며 지식인들의 작업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레닌의 발상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맑스주의 기본이론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플레하노프는 경제주의를 비판할 때 바로 자신이 사용했던 그 논지를 이제 공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농민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부르조아 혁명에 뒤이어 곧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독재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새로운 입장이 플레하노프에게는 특히 맑스주의로부터의 이탈을 뜻했다. 그는 혁명적 동맹세력으로서 농민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1905년 혁명의 실패 이후로도 계속 프롤레타리아는 민주적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부르조아지와 협동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견해를 버리지 않았다. 멘쉐비키의 입장에 더 가까웠던 그는 러시아에서 전제체제가 완전히 타도되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지와 최종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일이 요청된다는 각오를 하며, 러시아도 결국 서구와 같은 길을 걸어서만 사회주의에 도달하게 된다는 서구주의적 발상을 끝내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플레하노프는 인민주의나 수정주의와 마찬가지로 볼쉐비즘도 철학적 기저에서부터 맑스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그는 보그다노프(Aleksandr Aleksandrovich Bogdanov, 1873~1928, Malinovsky의 필명) 등 볼쉐비키들이 인간의 오성에 능동적 기능을 인정하는 경험비판론에 심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경우 플레하노프의 입장은 역시 경험비판론을 공격하고 있던 레닌의 입장과 가까운 것이었다. 볼쉐비즘과 멘쉐비즘간의 차이는 전략상의 차이였지 철학적 기반의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고 인민주의, 수정주의, 경제주의 등의 도전에 맞서 혁명적 맑스주의의 정통성을 수호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플레하노프의 공헌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한 사람이 레닌이었다. 그러나 플레하노프는 자기 자신이 평생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볼쉐비키의 혁명 공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자기가 이상으로 그려왔던 사회주의가 아닐 것이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가 유럽식 민주적 사회주의를 러시아의 이상으로 삼는 유토피아주의에 빠졌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맑스주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볼쉐비즘을 맑스주의로부터의 이탈로 설명함으로써 러시아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은 채 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이상 속에 안주해 버리는 입장을 택한 것이며 교조주의자로의 전락이 시작된 것이었다.[47] 1908년에 나온 "맑스주의의 근본문제"가 이론을 다룬 주요저술로 마지막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역사에서의 지리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 이외에는 史的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그의 해석에는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의 발간 후 1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음이 나타난다. 혁명적 맑스주의의 이론적 지도자로서의 그

47) Chagin, 앞 책, p. 149. Baron, 앞 책, p. 275.

의 공헌은 일단락을 지은 것이었다.

Ⅵ. 플레하노프의 말년

플레하노프는 맑스주의를 혁명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철학체계로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찍부터 예술과 문학평론을 통해 해석의 도구로서 史的 유물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으며 맑스주의 심미학의 초석을 마련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공헌도 혁명이론가로서의 공헌 못지않게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05년 혁명 이후 그는 혁명이론보다도 역사, 철학, 문학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적 저술에 주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1909년에 시작되어 3권이 완성되었던 그의 "러시아 社會思想史"는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높은 학문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술을 보는 그의 시각에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나 마찬가지로 두가지의 서로 다른 요소가 완전히 절충되지 못한 채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난다. 플레하노프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史的 유물론의 견지에서 볼 때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였고 그러한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했다. 그리고 예술의 발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다 사회환경이었다. 그러나 예술에서는 표현의 형식의 적절성이 이념 못지않게 중요했으며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산수단이나 기술과 예술사이의 관계는 더욱 더 간접적이 되었다.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함께 강조하는 가운데 플레하노프는 "이에로글리프" 이론을 내세움으로써 유물론적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한다.[48]

정치적 현실에 관한 판단에서나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물이나 문화적 업적을 평가하는 데서도 플레하노프에게는 기호나 취향과 그가 견지하고자 하던 史的 유물론의 입장 사이에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러시아 역사에 관한 그의 해석은 맑스주의 사학자였던 포크로프스키보다는 비맑스주의 사가였던 클류쳅프스키에 훨씬 더 가까왔다. 말년에 이르러서 그는 맑스주의와 칸트주의의 절충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경제주의에 대한 평가도 전과 같이 단호하게 배척적인 것은 아니었다.[49] 모든 일에 관해 교조주의적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는 그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고 史的 유물론이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그의 절대적 지지에도 知的 차원에서는 동요가 없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는 그 체계에 대한 절대 신뢰가 차츰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1905년에서 1914년 사이 정치적으로 플레하노프는 1912년 볼쉐비키와 멘쉐비키의 분열이

48) Chagin, 앞 책, p. 69. Kolakowski, 앞 책, p. 346.
49) Baron, 앞 책, p. 249.

최종적이 된 후까지도 두 파가 자기의 2단계 혁명론을 지지하며 화합하기를 바라는 국제주의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는 멘쉐비키는 수정주의쪽으로, 볼쉐비키는 바쿠닌주의쪽으로 자기의 정통 맑스주의로부터 이탈하고 있었던 것이라 보았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날의 중재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1914년 전쟁의 발발과 함께 인터내셔날이 무너지자 플레하노프는 열렬한 애국주의자가 되었다. 러시아는 침략자가 아니었으며 독일의 패배는 독일과 러시아 양쪽에서 다같이 혁명운동의 진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므로, 계급투쟁의 중단과 애국적 단합을 위한 자기의 호소는 맑스주의자로서의 국제주의 입장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월 혁명은 그가 오래 갈망했던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러나 10월 볼쉐비키의 권력장악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단계에서 이룩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외면한 성급한 처사로서 그 혁명의 성과를 무효화시키는 불상사였다. 그렇다고 그가 그 혁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 수도 없었다.[50]

러시아 맑스주의의 이론적 창립자 플레하노프는 자기의 서구주의적 맑스주의 혁명이론이라는 침대에 러시아의 현실이라는 체구를 맞추어 자르고자 했던 셈이었다. 史的 유물론과 변증법 유물론을 신봉하는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관념론적 오류를 범한 그가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50) 플레하노프에 대한 소련의 공식 평가에서는 이 점이 중요하게 언급된다. Chagin, 앞 책, p. 159. 그리고 Plekhanov, 앞 책 I 속의 I. Fomina, "Plekhanov's Role in the Defence and Substantiation of Marxist Philosophy," p. 13.

《**Abstract**》

G.V. Plekhanov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Russian Marxism

In-ho Lee

Plekhanov was not only the father of social democracy in Russia but also a Marxist theoretician of international renown. Yet when the Bolsheviks came to power in October, 1917, Plekhanov found himself not among the victors. This brief essay explains this personal tragedy as a consequence of Plekhanov's acceptance of Marxism as a closed system of dialectical materialism. Plekhanov joined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itially as a populist of the Bakuninist bent emphasizing the absolute requirement of mass participation in the coming socialist revolution as opposed to the Tkachevian notion of conspiratorial seizure of power. He was converted to Marxism because he saw it as a philosophical system which guaranteed the eventual victory of socialism and recognized the positive role capitalism and the bourgeoisie were to play. Although Plekhanov tried to make due allowance for the role of individual personalities in history and cautioned against excessive reliance on spontaneity of the masses, he was even more wary of any attempt to force the pace of history. Plekhanov recognized tha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followed a pattern somewhat different from what Marx had in mind, but, unlike Lenin, adamantly refused any necessity to adjust the theory to a reality vastly different from that upon which it had originally been founded. In the end, it was his dogmatic insistence upon the narrowly defined orthodoxy and the idealistic hope to fit the Russian reality into the Procrustean bed of revolutionary Marxism that proved to be Plekhanov's undoing.